

금남로 1만5000명... 다시 활활 타오른 촛불

44일만에 1만명 재돌파 대보름 맞아 축제의 장으로 세월호 인양 촉구 자유발언 서울 광화문엔 75만명 몰려

잠시 주춤했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축제'로 변하며 촛불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전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인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5차 광주시국촛불집회'에는 지난해보다 10배 증가한 1만 5000여명의 시민이 참가, 44일 만에 다시 1만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앞서 열린 사전행사에는 정월대보름을 기념해 찹쌀떡, 제기차기, 판화 찌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고 허다운양의 어머니 박은미씨와 고 조은화양의 어머니인 이금희씨가 광주를 찾아 자유발언에 나섰다. 지난해 제 7차 광주시국촛불집회에 이어 다시 광주를 방문한 박은미씨는 "평화롭게 부는 바람소리가 '엄마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들린다"며 "어둠과 차가운 바닷속에 우리 다운이를 포함해 모두 9명이 아직도 있다. 하루빨리 인양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금희씨는 "세월호 인양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길이다"며 "인양을 못 할까봐 무섭다"며 울먹였다.

자유발언과 준비된 공연이 끝나고 시민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들은 금남로에 설치된 본 무대에 올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준비한 부름을 깨고 풍물패와 노래를 부르며 탄핵보름극 강강술래를 했다. 강강술래를 하는 시민들은 핸드폰의 조명을 이용해 뒤불을 하듯 팔을 돌리며 앞으로의 투쟁 결의도 다졌다.

황성호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상형실장은 "사실상 2월 탄핵 인용이 물건너갔다. 3월 역시 장담할 수 없어 위기감을 느낀다"며 "오는 25일에 열린 촛불총

결기의 날에 초점을 맞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지역 13개 시·군에서도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등을 외치며 2500명이 15번째 촛불을 들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신속 탄핵의 길로 올 곧게 갈 것'을 촉구하며 15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75만명이 광화

문집회에 참석했다"며 "전국적으로 총 80만6000명 참가해 올해 최대 인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결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11일 광화문 광장 옆 대한문 앞에서 '탄핵 반대 12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탄핵무효, 국회해산" 등 구호를 외치며 탄핵기각과 특검해제를 주장했다. 탄기국은 참가자가 21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무기수 김신혜 재심 여부 대법서 판가름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검찰 불복 재항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40)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다시 미뤄져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 10일 광주고법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즉시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따르면 김신혜 사건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1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범한 사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됐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씨가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심의 실

익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하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결정하면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는 첫 재심을 받게 된다. 재심이 결정되면 이 때부터 김씨 사건의 진실규명 재판은 다시 이뤄지게 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수차례의 심리를 거친 뒤 1심 선고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항소·상고까지 불기각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아이가 예뻐서..." 8살 여아 납치 지적장에 2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청은 8살 여아를 납치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적장에 3급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A(8)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아동센터에 찾아가 자신이 아이의 삼촌이라며 "아이의 할머니로 알고 있다"며 A양을 데리러 가는 부탁을 받고 왔다"며 A양을 데리러 갔다고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김씨가 아동센터 인근에서 A양을 만나 이름·

사는 곳 등을 물어봤다고 밝혔다.

아동센터 보육교사는 A양의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러 센터에 방문하자 아이가 납치된 사실을 알고 이날 오후 5시43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추적을 나서 김씨가 아동센터 인근 원룸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신고된 지 3시간 만에 A양을 재유능하고 은신 중인 김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이가 예뻐서 데리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5·18 발포 전두환 지지 아니다' 전인범 발언 물의

5·18단체 강력 반발

전인범 사과후 미국행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인사 1호인 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의 '5·18 발언'이 5·18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발언이 최근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에 어찌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5·18기념재단과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최정세 부대로서 국민 세금으로 양성되는 특전사가 5·18 당시 시민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살상을 저지른 것을 호도하는 발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특전사

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여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인 전 전 사령관이 5·18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18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군지휘부 어느 사람도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 마당에 그런 명령을 따른 군인들을 옹호한다면 군사 쿠데타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세력을 두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전 사령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발포를) 지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이날 각종 구설과 5·18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연수를 받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성매매 3건 중 1건이 '채팅앱'

청소년 성범죄 노출 위험 커져

경찰, 오늘부터 4주간 집중 단속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적발된 성매매의 3건 중 1건이 채팅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졸업과 맞물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13일부터 4주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인 97건이 스마트폰 채팅앱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지난 2014년 4.8%(187건 중 9건), 2015년 6.7%(150건 중 10건)에서 지난해 34.4%로 2년새 증가 폭이 6배나 치솟았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사범 1142명 중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남성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이었다. 이 중 성매매 여성 청소년은 23명이나 됐다. 2014년 6명, 2015년 5명과 비교하면 4~5배 급증했다. 경찰은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수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광주 북구 유동에서 가출패를 꾸려 생활하는 10대 여학생 3명과 채팅앱으로 만나 해당 수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지역 쉼터에서 지내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 대덕 호두농장 특산품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호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신임정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철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실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3.3.(금) 08:3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3.4.(토) 08:30 (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3.4.(토) 14:0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3.6.(월) 14: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3.2.(목) 08:3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3.4.(토) 14:0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 4.(토)	2017. 1.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10-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 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 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전문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교육기간 : 2017년 3월 29일(목) ~ 2017년 6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 강 료 : 20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geole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1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국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신청 : 과정명 클릭 | 수강신청 | 핸드폰인증 | 신청 | 수강료납부
·오프라인신청 : 방문접수, Fax접수(520-4245), 전화접수(520-4241~4243, 4248)
·수 강 료 : 20만원 (예금주: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기간안내 : 수강신청기간 : 2017. 2. 1(수) ~ 2. 28(화)
교육 기간 : 2017. 3. 6(월) ~ 6. 12(월)
매주 목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상담지도교수 : 송용국 010-9416-1200